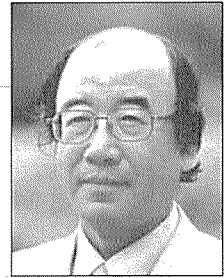


## 변화하는 사회 속의 도서관인의 윤리와 인권



김승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와 통신기술로 정보 전달은 물론 새로운 정보를 가공하는 효율성이 향상되어, 한층 더 사회의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정보를 대량 복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복제된 정보는 저렴한 비용과 아주 빠른 유통과정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발달한 통신기술에 의하여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창출해 사회의 정보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는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보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이용시켜야 하는 도서관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있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도서관인의 윤리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 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되는 사서가 이용자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완벽한 전문가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고,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폭넓게 협력하는 방안을 꾸준히 전개해야 하고, 민주적인 사회발전을 위해 책임을 다 해야 하며, 정보의 활용을 위해 봉사하는 태도를 다 하는 것이 도서관인의 윤리였다. 도서관인으로서의 직업적인 윤리규범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도서관인이 윤리를 지켜야 한다면 이용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윤리성이 지켜져야 했다. 예를 들면, 이용자들의 신상명세는 물론 정보이용 현황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도서관에 있는 정보는 어떤 정보든지 이용자가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화 없이 동등하게 봉사하고, 개인이든 집단이든 지원을 해야 한다. 그러나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발전에 의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도서관은 정보유통의 기술적인 차원 문제뿐만 아니라 도서관인의 윤리와 인권이라는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하루라도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 이용자들의 인터넷 활용을 위한 도서관의 시설과 그 이용에 관한 서비스 문제, e-mail이나 홈페이지를 활용하지 않으면 시간적으로는 물론 물리적으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능률적으로 뒤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을 갖추어 가고 있다. 그런데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이 이러한 시설들을 정보를 유통시키는데 도덕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까지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설치의 도서관인의 윤리 문제를 떠나 이용자들의 인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윤리위원회 위원장, 강남대학교 부총장(문헌정보학과 교수), rrrcamp@chollian.net

지난 제42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윤리위원회 주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실 심민석 실장이 “도서관과 인권”이란 주제를 발표했는데, 발표가 끝난 뒤의 질의 응답 시간에 CCTV 설치에 따른 이용자들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논의되었다. 이용자가 물건을 분실하고 녹화된 자료를 확인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토의되었다. 도서관에 설치된 이러한 시설은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가 있지만 도서관을 관리하는데 편리함은 물론 부족한 사서인력의 효율적인 활용 차원에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인권 문제는 먼저 사회에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CCTV도 문제가 제기되었다. - 지난 9월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주택가에 주차된 승합차에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방범용 폐쇄회로 TV(CCTV)에 범행 순간이 찍히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피해자 김모씨는 “목격자도 없고 피해도 작아 범인을 못 잡을 줄 알았는데 CCTV 덕분에 배상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경찰청이 방범용 CCTV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략)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 발생률이 이전보다 36.5% 줄었다. [중앙일보 2004. 10. 31. 기사 중에서] 과학의 힘으로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주택가에 설치된 CCTV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초상권은 물론 자기가 감시되고 있다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되어 찬반이 논의되고 있다. 도서관에 설치된 CCTV도 활용도가 높고 편리함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용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도서관에서의 윤리와 인권 문제는 이제 홈페이지의 활용과 정보의 이용을 위한 열람이나 대출 시스템과 연관되어 정보의 유통에 의한 인 권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도서관의 윤리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도서관인만의 윤리 문제만을 떠나 도서관 이용자들이 지켜야 하는 권리와 의무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보검색실에서 지켜야 하는 이용자들의 각종 사이트 활용,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 홈페이지의 게시판 활용, 자료실이나 열람실에서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공중도덕 등은 도서관과 이용자간의 윤리 및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도서관은 먼저 이용자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통한 윤리로 이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문제가 도서관에서는 건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은 점점 빠르게 발전하여 정보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활용시켜야 하는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기 쉬운 경향이 도래될 수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용자에게 접근해야 할 도서관인의 윤리가 필요하다. 

도서관에서의 윤리와 인권 문제는 이제 홈페이지의 활용과 정보의 이용을 위한 열람이나 대출 시스템과 연관되어 정보의 유통에 의한 인권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도서관의 윤리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도서관인만의 윤리 문제만을 떠나 도서관 이용자들이 지켜야 하는 권리와 의무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